

일본 강점기 명주실 뿔던 나주잠사 문화센터 새단장

나주 시민 위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 탈바꿈 전라도 정명 1천년 연계 다양한 전시 열려

하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뿔던 나주잠사(蠶絲)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해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활동의 거점이자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나나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제 강점기 강제수탈 등 지역민의 아픔이 서린 폐건물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센터 개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폐업이나 용도가 사라져 방치된 건물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 교육의 선순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는 문화아트 프로젝트의 하나로 나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나나센터)는 공모를 통해 지었다.

시인 조지훈의 '승무'에서 따온 것으로, 누에고치가 나비가 돼 완전한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형상화한 말이다.

금남동에 위치한 나주잠사(부지 5,117㎡·건축면적 2,187㎡)는 일제 강점기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뿔던 공장이다.

1910년 일본인 센가(千賀)가 설립한 회사로 한때 종업원이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큰 근대 산업시설 중 한 곳이다.

1970년대 나일론의 등장으로 양잠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1978년 폐업했다.

건조시설·창고·누에고치 보관소 등 1~4층 규모 건물 6동과 굴뚝 등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나주시는 모두 57억원을 들여 창고 등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갤러



나주시는 지난 18일 지역 문화예술의 새로운 창조활동의 거점이자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될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개관했다.

리, 기획 전시실, 공연장, 음악 연습실, 공동장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공예실 등으로 리모델링했다.

개관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손금주 국회의원, 김욱기 도의원 등 지방의원,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한마당, 축하한마당, 개관식, 시설 및 전시관람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

는 오카리나 시민합주단, 성북동마을합창단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비롯해 시립국악단의 터뻐기(지경다짐), 기념식수(단풍나무)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나센터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공간이자 원도심 전 통지구의 역사문화와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지구를 결합하는 스마트생태문화도시를 구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나나센터 개관에 맞춰, 전라도 정명 1,000년 D-1년을 기념하기 위해 '나주문화발신 1018'이라는 테마를 통해 다채로운 전시 및 문화 이벤트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먼저 나주시는 나나센터 일원에서 중국 현대화가 3인과 한국 현대화가 3인의 그림 작품을 전시한 한·중 대표작가 교류전(-12월20일·상설전시실)과 한국전 연염색문화상품 공모선정작을 전시한 '한국전연염색문화상품대전'(-24일·2층 다목적실)을 비롯해, 김진순 작가의 '설치미술작품전'(-11월17일·갤러리Ⅱ), 신성한 작가의 '미디어 아트'(-11월8일·공연장), 나점수 작가의 'Korean Project 'HERE'' 공공미술작품(-22일·야외마당) 등 유명작가 초대전까지 다양한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

전시행사와 관련된 문의는 나주시청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061-339-8582)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주목! 이사람



유두석 장성군수는 20일 오전 10시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행복한 배움! 장성무지개 교육축제'에 참석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20일 오전 11시 강진만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4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개막식에 참석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0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2청사에서 열리는 친환경농업대학 수료식에 참석한다.



함평군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함평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인기

객실·오토캠핑장 2개월후까지 예약 마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함평군 주포권역 다목적센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총 36억6,300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77.1㎡ 규모의 주포권역 다목적센터를 준공했다.

1층에는 단체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석양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있다. 2층엔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

는 다양한 규모의 객실 6개를 갖추고 있으며, 야외에는 오토캠핑장 18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현재까지 6,184명이 이용했고 6,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특히 객실과 오토캠핑장은 두 달 후까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변에 들머리해수욕장과 생태체험관인 양사파종류생태공원이 있어 '생태체험학습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애기단풍 향연...장성 백양단풍축제

27~29일 백암산·백양사 일원 체험·전시 확충

백암산애기단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인 '백양단풍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백암산과 백양사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1회째인 백양단풍축제는 백암산 애기단풍과 도실에서 보기 힘든 야생화, 다람쥐 등 동식물을 감상하며 가을 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엘로우시티와 함께하는 오색단풍 여행'으로, 장성군은 주무대와 개관식을 없애고 소규모 위주의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소모적인 행사를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장성군은 올해 대표소인근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무대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축제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됐다. 국립공원 숲속체험 교실, 농·특산물 원산지 홍보, 편백공예 체험, 모바일 AR 스탬프투어, 희망팔찌 만들기 및 닥트게임, 단풍 손수건 만들기,

전통주 무료시음, 단풍 캐리커처,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백양단풍 사진관(무료 사진인화), 캘리그래피 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단풍거리 시화전, 장성관광 사진전, 캘리그래피 전시 등의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백양단풍축제'의 주 무대인 백양사는 유명 관광지다. 1,400여년 전 백제 무왕 33년(632년)에 여환조사가 장건한 고찰로 호남불교의 요람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이자 5대 총림 중 한 곳인 백양사는 창건 당시엔 백암사로 명명됐으며 고려 덕종 3년(1034년) 중연선사가 중창하면서 정토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조선 선조 7년 환양선사가 백양사란 이름으로 고쳐 불렀다.

이후 1917년 만암 대종사에 의해 중건됐다. 백양사 산내 암자로는 참선수행 도량인 운문암과 물외암, 금강대, 청량원, 비구니 선원인 천진암이 있

다. 또 기도 도량으로 약사암과 영천굴이 있으며, 서편에 계곡과 산수가 울창하고 빼어난 청류암과 흥련암이 자리하고 있다.

백양사는 주변의 빼어난 경관 덕에 청량한 기운이 샘솟아 정신수양에 가장 좋은 도량으로 전해 온다.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백양사 내에는 보물인 소요대사부도를 비롯한 극락보전, 대웅전, 사천왕문, 청류암, 관음전 등의 국가 문화재들이 가득하고 담장에 기대어 있는 고불매와 비자나무 숲과 같은 천연기념물도 볼 수 있다. 사계절 멋진 풍경을 자랑하지만 애기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특히 아름답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운 애기단풍이 파란 가을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장관"이라면서 "가을의 절정을 '백양단풍축제'를 즐기며 만끽해달라"라고 말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장흥 우울증·자살 예방교육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은 최근 주간보호실 이용자 및 지역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장흥군보건소의 협조를 통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우울증 선별 방법과 자살 징후, 예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장애인들과 복지관이 이용자 40명이 참석했으며 일상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우울증 증상 및 치료 사례 제시, 자살징후와 예방을 위한 방법을 전달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나주 010-3648-2222
-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무안 010-3621-8989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 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